

천태종 대광사  
국운융창 평화통일 기원 대광사 미륵보전 낙성대법회

## 축 사 (안)

산천 곳곳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연만물은 언제나 신비함으로 희망의 선물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듯 좋은 절기에 대한불교천태종 성남 불곡산 기슭에 자리한 전법도량 대광사에 장엄한 미륵보전을 건립하고, 수승한 미륵대불을 모시게 되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모든 종단과 더불어 깊은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낙성대법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중국과 일본 불교계의 대표단과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미륵보전과 미륵대불을 원만히 낙성하기까지 굳은 서원으로 일념 매진해 오신 천태종 종정 큰스님과 종단 사부대중 모두의 정성이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오늘의 불사는 한국 불교계에 큰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현시대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미륵부처님의 서원과 대자대비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이기에, 오늘 대광사 미륵보전을 낙성하는 것은 불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도 큰 의미로 전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미륵부처님은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이기보다는 현재의 중생계를 보듬어주시는 희망과 용기의 큰 스승이 미륵부처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광사에 미륵보전과 미륵대불을 모신 이 거룩한 인연이 무영에 험싸인 일체중생들에게 전미개오의 큰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로부터 도량을 세우고 불보살을 모시는 공덕은 커다란 복전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도량이 있음으로 만 중생이 귀의할 수 있고, 불보살님을 모심으로써

한량없는 서원과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광사 미륵보전의 낙성이 보다 많은 사람을 편안케 귀의하게 하고, 정법안장의 무량복전을 가꾸는 깊은 인연공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엄한 불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한량없는 축하의 마음을 드리며, 불사의 인연이 국민의 화합과 인류의 행복으로 널리 회향하기를 마음모아 기원합니다.

불기2561(2017)년 4월 1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